

“맞따라 맞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 상하이비엔날레와 패키지 관람 ‘재미 두배’

미술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미술관과 전시회를 둘러보는 ‘아트 투어’가 인기다. ‘아트 투어’는 먹고, 놀고, 마시던 해외 여행에서 벗어나 유명 미술관을 둘러 미음을 살찌우는 알짜 여행이다.

제7회 광주비엔날레(5~11월 9일)가 열리는 올 가을에는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열린 유명 전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연례보고(Annual Report)’란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36개국 125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며,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 동안 전세계에서 열렸던 주요 전시회 36개가 초청됐다. 36개의 미술관을 찾아가지 않고도 이를 전시를 광주에서 모두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 다양한 현대 미술의 향연=광주비엔날레 최초의 외국인 지휘자인 오루이 앤워저 예술총감독이 제시한 ‘주제없는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세계 유명 비엔날레들이 작가와 작품을 일정한 주제에 페맞춤으로 써

전세계 36개 전시회 작품 초청, 현대미술의 향연

3개월 교육 받은 시민 도슨트 61명 감동 서비스

현대 미술의 다양한 창작 욕구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아예 주제를 없앴기 때문에 실현성 강한 작가들이 마음껏 끌휘해 불거리 많다.

전시는 크게 ▲길 위에서(On the Road) ▲제안(Position Papers) ▲끼워넣기(Insertions) 등 3개의 전시 섹션으로 구성된다. ‘길 위에서’는 세계에서 열린 전시회들을 모아 이를 전시들이 서로 충돌하고 융합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흥미있는 섹션이다. 또 ‘제안’은 다섯 명의 젊은 큐레이터가 선보이는 실험의 장이고, ‘끼워넣기’ 섹션에서는 42명의 국내외 작가들이 이번 비엔날레를 위해 제작된 특별 티켓을 선보인다.

◇ 패키지 상품 이용하면 ‘재미 두배’=제7회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비엔날레 전시관과 담양 소쇄원, 장성 백양사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아트 투어 상품을 이용하면 편하다. 광주비엔날레 제단은 아시아권 비엔날레 공동 마케팅 전략인 ‘아트컴퍼스 2008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놨다. 광주비엔날레와 제7회 상하이비엔날레(9월 9일~11월 16일), 제2회 싱가폴비엔날레(9월 11~11월 16일), 제3회 요코하마트리엔날레(9월 13~11월 30일)를 둘러볼 수 있는 패키지이다.

관람객이 아시아권 비엔날레를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호텔, 항공권 예약 등을 각국의 비엔날레 재단들이 공동으로 지원해주는 관광 상품이다.



제7회 광주비엔날레가 오는 5일 개막식을 갖고, 66일간 역동적인 현대 미술의 향연을 펼친다. 비엔날레 전시관과 담양 소쇄원, 장성 백양사 등을 둘러볼 수 있는 다양한 아트 상품이 출시됐다. 사진은 지난 6월 열렸던 ‘광주비엔날레 D-100 행사’ 모습.

## (30) 광주비엔날레 아트 투어

다섯 가지 상품이 있는데 투어1, 2는 광주비엔날레를 자유롭게 관람하고 소쇄원, 백양사, 명가은(전통 다과 체험) 등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상품이다. 투어3은 상하이비엔날레, 투어4는 요코하마트리엔날레, 투어5는 싱가폴비엔날레를 찾아가는 상품이다.

가령 광주비엔날레와 요코하마트리엔날레를 보고 싶은 관람객은 투어1이나 2와 투어4를 함께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 광주 시민의 감동 서비스=친절한 광주 시민들이 이 타지역 관람객들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를 펼친다. 난해한 현대 미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선발된 시민 도슨트(docent·전시해설사) 61명이 관람객들과 눈높이를 맞춘 해설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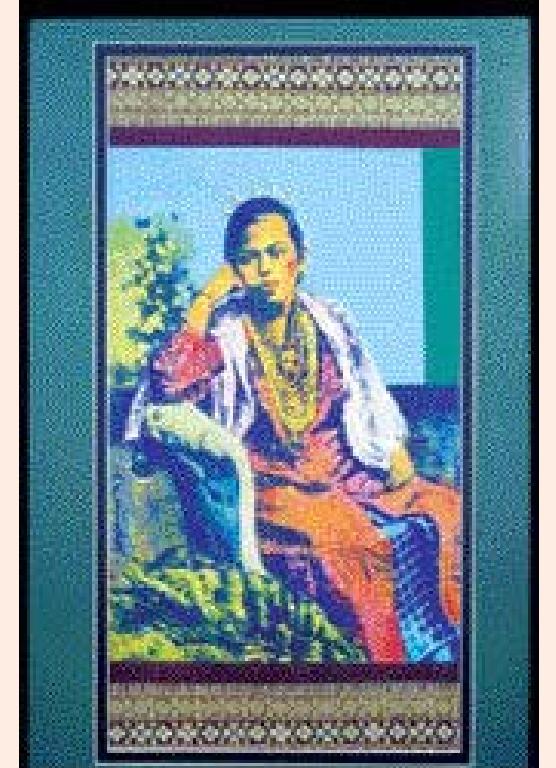
이들은 3개월 동안 현대 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교육을 마쳤고, 비엔날레 초청 작가·작품에 대해 심화교육을 받은 준전문가들이다.

또 청소년 도슨트도 첫 선을 보인다. 아시아의 대표 비엔날레인 광주비엔날레를 찾는 청소년들이 갈 수록 늘고 있어 또래 친구들이 작품해설을 해주는 제도이다. 모두 29명의 청소년들이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도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전문교육을 받은 준비된 도슨트들이다.

◇ 예매하면 입장권이 저렴해요=제7회 광주비엔날레의 입장권 요금은 1만2천원(성인 기준)이다. 청소년은 5천원, 어린이는 2천500원, 유치원생은 무료다. 20인 이상 단체 입장은 2천원이 할인된 1만원이며, 예매(9월 4일까지)를 하면 성인 2천원, 청소년 1천원, 어린이 500원을 각각 할인받는다. 입장권은 광주은행 본점 및 전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티켓링크(<http://www.ticketlink.co.kr/>)에서도 예매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북구 중외공원 내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광주시립미술관, 의재미술관, 광주극장 등지에서 열린다. 전시장 간의 이동은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062-608-4225.

/오광록기자 kroh@kwanju.co.kr



위로부터 레자 피아다사 작 ‘Seated Malay Woman’, 제니퍼 알로라 작 ‘Sediments, Sentiments’, 둘로스 지니·후안 마이다간 작 ‘Model for Gwangju, 2008’

## 국제보정기

‘좋은보정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점(동구청남로15번길1)  
(062) 227-9940

충장점(금남공원앞)  
(062) 227-9970

광주·전남  
기능장 티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555-KBO 사람내신 방법

**가  
발**  
초슬립!!

미용기기류 화장·화장수류  
수건류·면류·면화류·면화류  
면화류·면화류·면화류·면화류

화장실 티타이거 티타이거 티타이거  
귀여운 문화화 만화를 찾아주는  
특별한 출판자가 되었습니다.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2년  
부동산 문진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었습니다

한글부모를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합니다?  
• 100% 한글부모를 위한 부동산 투자  
• 100% 한글부모를 위한 부동산 투자  
• 100% 한글부모를 위한 부동산 투자

